

‘초보 사령탑’ 이범호, 7개월만에 ‘우승 감독’으로

타이거즈 사상 첫 취임 원년 정상 ‘선수·감독’ 모두 우승 경험 ‘한국시리즈 전승기록, 이어갈 것’



지난 2월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이 선임 7개월 만에 ‘초보 감독’

에서 ‘우승 감독’으로 거듭났다. KIA가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된 가운데 이 감독은 최종 목표인 ‘V12’를 이를 때까지 차분하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KIA는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승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큰 성과를 이뤘다”며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를 잘해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 고맙다. 송호성 구단주와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모든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감독은 이로써 타이거즈 역사상 처음으로 취임 첫해 정규 시즌 우승을 일궈낸 사령탑이자 최연소 우승 감독이 됐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선수로, 7년이 흐른 올해는 감독으로 타이거즈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경험했다.

그는 “2017년에 선수로 우승을 경험했다. 그때가 처음이었다”며 “우승이라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감독으로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를 항상 힘내게 해주신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한국시리즈도 잘



7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에서 취재진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다. 2017년 정규 시즌과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하며 ‘V11’을 일궈냈던 김기태 전 감독을 많이 닮아있기도 하다.

그는 “감독은 어떤 선수가 어떤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분명히 성적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2011년부터 14년간 팀에 있으면서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한 경기는 실패해도 두 경기 세 경기는 반드시 이겨낸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감독은 강단 있는 운영을 선보였다. 대타와 대주자, 대수비 등 적재적소에 교체를 활용했고 실책이나 본헤드 플레이가 나오면 문책성 교체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누가 언제 나가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것 같다”며 “선수들을 놓고

빠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 투수나 타자를 교체하고 꼭 대화를 하고 다음에 다시 출전 기회를 주면서 관계를 잘 맺으려 했는데 이 부분이 힘이 된 것 같다”고 되짚었다.

초보 감독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 있었던 고비 역시 완벽히 넘겼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는 물론이고 13점 차 역전 허용과 30실점, 24점 차 패배 등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 있었던 요소들을 모두 지워냈다.

이 감독은 “너무많은 시련을 주신 거야

닌가 싶었다. 부상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계속 늘어났고 투수들이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며 “크로우가 나가고 (이)의리가 나가고 (윤)영철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걱정은 있었지만 결국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잘 메꿔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KIA는 올 시즌 선발진에 큰 구멍이 있었다. 양현종을 제외하고 개막 선발진 다섯 명 중 네 명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김도현과 황동하 등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고, 타선에서도 화력을 더하며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이였다.

이 감독은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팀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확신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7월부터는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이제 KIA 선수단과 팬들의 시선은 정규 시즌 우승을 넘어 한국시리즈 제패와 통합 우승, 그리고 ‘V12’를 향한다. 열두 번째 우승을 이뤄낸다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회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며 구축했던 ‘해태 왕조’를 ‘KIA 왕조’로 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을 믿고 준비하겠다. 한국시리즈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네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겠다. 열한 번 올라가서 모두 우승했기 때문에 열두 번 올라가도 우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천·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캡틴’ 나성범 “이적 후 첫 우승, 동료들 덕분”

주장 선임 첫해 정규 시즌 제패 “열광적인 분위기 벌써 설렌다”

‘호랑이 군단의 캡틴’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주장 선임 첫해에 팀을 정규 시즌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는 우승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한국시리즈에서 통합 우승을 일궈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나성범은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스프링 캠프에서 이범호 감독님께서 선임되신 후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FA 계약 당시에 꼭 우승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돼 정말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성범은 김선빈의 주장직을 물려받은 올 시즌 유독 단란했다. 지난 3월 시범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됐고, 4월 말 1군에 복귀했으나 타격 부진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작년에도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부상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빈자리를 잘 메꿔줬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을 이룬 것 같다”며 “처음 주장을 맡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다. 각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인지하고 정규 시즌을 치른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장으로서 KIA가 고비를 넘기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잠실 LG전에서는 0-1로 뒤진 5회초 동점 솔로포를 포함 3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14-4 대역전승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당시 LG와 삼성의 맹추격을 받던 KIA는 시리즈스윙을 달성, 단독 선두 수성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

나성범은 “2020년 NC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할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지난 1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에서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때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역전승이나 여러 행운이 따랐다. 올 시즌도 역전승과 행운이 많았고, 선수들이 잘 이겨냈다”며 “어떤 타자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 부상에 대한 미안함도 덜었다”고 말했다.

나성범은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다. 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훈련과 경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팬들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 후배들에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준비를 잘하겠다. 감독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훈련할 것”이라며 “아직 4승이 남은 만큼 긴장을 풀지 않겠다. 매일 매진을 시켜주는 KIA 팬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충분히 알기에 벌써 설레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한규빈 기자

‘대투수’ 양현종 “세 번째 한국시리즈도 무조건 우승”

2009·2017년 이어 정상 도전 “선배님들 우승의 기운 받을 것”

‘대투수’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개인 통산 세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2009년과 2017년 정규 시즌과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했던 그는 올해 역시 정규 시즌을 넘어 통합 우승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다.

양현종은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모두 하나가 돼서 1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 18년 차를 맞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 그에게 올 시즌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막 선발진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홀로 풀타임 선발로 활약했고, 양현종이 등판하지는 않았지만 13점 차 역전 허용과 30실점, 24점 차 패배 등 팀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도 있었다.

그는 “시즌 초반에는 힘든 경기도 많았고 중반에는 선두를 달리면서도 순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경기도 있었다”며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면서 한 게임 한 게임이 힘들었지만 매직 넘버가 나오면서 저희 할 것만 하자고 다같이 마음을 다잡았다”고 회상했다.

양현종은 2009년 군산, 2017년 수원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던 만큼 올해는 광주 팬들 앞에서 팡파르를 터트리길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광주가 아닌 인천에서 우승 레이스가 종결됐다.

그는 “조금 아쉽긴 하다. 올 시즌에 너무많은 팬들



KIA타이거즈 양현종과 선수들이 지난 1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께서 경기장에 와주셔서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챔피언스필드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팬들께 정말 감사하고 선수들의 진심은 잘 전달됐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제 양현종은 세 번째 한국시리즈를 준비한다. 2017년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완봉승, 5차전에서 세이브를 챙기며 MVP에 등극했고, 타이거즈는 11번의 한국시리즈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던 만큼 그와 팀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양현종은 “선배님들께서 절대 지지 않는 성적을 내셨기에 한국시리즈를 할 때마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09년과 2017년 모두 부담감은 있었지만 선배님들께서 우승의 기운을 북돋아주셨다. 올해도 그런 기운이 이어질 것이고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한규빈 기자